

9급 모의평가 국어

오대혁(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부산 이그잼고시학원, 위즈고시학원)

출제 경향 분석

국어의 출제 영역을 '① 국문법, ② 어문규정, ③ 한자, ④ 논리적인 글(비문학), ⑤ 문학' 등으로 나누었을 때, 국문법이 4문제, 어문규정이 4문제, 한자가 3문제, 논리적인 글이 6문제, 문학이 3문제 출제되었다. 기존의 출제 영역과 비교했을 때 국문법이나 어문규정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며, 논리적인 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출제 영역	세부 영역	비고
국문법	국어의 특질(1) 어휘론(4) 어휘론	4
어문규정	외래어표기법(1), 띄어쓰기(1) 어법(1), 언어예절(1)	4
한자	속담과 한자성어(1), 한자 어휘(1) 한자성어(1)	3
논리적인 글(비문학)	말하기(1) 내용의 일치(1), 자료해석(1), 추론(1), 진술방식(1), 내용 이해(1)	6
문학	표현기법(1), 문학비평(1), 소설의 내용 파악(1)	3

국문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출제를 피하고 있으며, 어문규정의 표준어와 한글맞춤법 따위는 아예 출제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이번 시험에서 출제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려는 수험생들에게 국어 영역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출 문제에서 문제를 뽑은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휘 영역이 강화되고, 논리적인 글이 그 비중을 높이고 있어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쉽게 여겼을 모의시험이었다. 만일 이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된다면 국문법 지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출제 난이도를 결정하기 위한 잣대로 이용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출제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의도 또는 진입 수험생들을 고려한 출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수험생들은 기존의 출제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국어 영역을 골고루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영역은 달라지지 않았고, 출제 수준이 낮을 뿐인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문 1.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현은?

- ① 핫케익
- ② 텔레비전
- ③ 서핑
- ④ 쟈즈

[정답] ③

[어문규정 - 외래어 표기법]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씨핑’이 아니라 ‘서핑 (surfing)’이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이 두 원칙에 따라 ‘핫케이크’라고 써야 옳다.

②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는 '지'로 적는다.” 이 원칙에 따라 ‘텔레비전’이라 써야 옳다.

④ 파찰음인 ‘ㅈ’도 중국어를 표기할 때 이외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재즈’가 옳다.

문 2.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
|--|
| ○ 아내가 마늘 한 (㉠)을/를 들고 왔다. |
| ○ 주문진 항에서 북어 한 (㉡)을/를 샀다. |
| ○ 지친 남편을 위해 20일간 먹을 한약 한 (㉢)을/를 지었다. |

- | | | |
|------|---|---|
| ㉠ | ㉡ | ㉢ |
| ① 고리 | 태 | 연 |
| ② 접 | 손 | 첩 |
| ③ 거리 | 쾌 | 필 |
| ④ 접 | 쾌 | 제 |

[정답] ④

[국문법 - 어휘론 : 단어어의 의미]

접 : 채소나 과일 따위의 백 개를 이르는 말.

쾌 : 북어 스무 마리를 한 묶음으로 하여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제 : 한약을 스무 첩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때로 그만한 분량으로 지은 환약(丸藥) 따위를 이르기도 한다.

<오답 피하기>

고리 : 소주를 사발에 담은 것을 묶어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한 고리는 소주 열 사발을 이른다.

태 : 나무꼬챙이에 썬 말린 명태 20마리.

연 : 종이 전지 500장.

손 : 물건을 한 차례, 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분량. 조기, 통배추 따위는 크고 작은 것을 끼어 두 개씩을, 미역, 미나리, 파 따위는 한 줍씩을 한 손이라고 한다.

첩 : 수 관형사 뒤에서 의존적 용법으로 쓰여, 약봉지에 싼 한약의 뭉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것은 ②이다.

문 5.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케네디 우주센터의 레이몬드 휠러 박사팀은 무, 양상추, 밀 등의 식물을 특수 챔버 속에서 넣고 20여 일 간 길렀다. 이후 챔버의 공기압을 대기압의 1.5%까지 낮춰 진공에 가깝게 만들어 30분 간 지속시켰다. 22℃였던 온도는 16℃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남아 있는 공기의 대부분은 수증기였다. 다시 기압을 정상으로 되돌리자 모든 식물은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 수확할 때까지 눈에 띄는 이상이 없었다.

- ① 미국항공우주국에서는 공기압 관련 실험을 진행했다.
- ② 공기압과 식물의 성장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 ③ 특수 챔버에서 일주일간 기른 식물을 20일 후에 수확했다.
- ④ 식물은 진공 상태가 30분간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았다.

[정답] ③

[논리적인 글 - 내용의 일치]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대단히 단순한 문제이지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문제이다. “특수 챔버 속에서 넣고 20여 일 간 길렀다.”와 “기압을 정상으로 되돌리자 모든 식물은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 수확할 때까지 눈에 띄는 이상이 없었다.”라는 진술 등을 토대로 할 때 ③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문 6.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읍 상징물 제작 선정 공모 공고

1. 공모 기간:2012. 5. 10.~6.10.
2. 참가 대상
 - ○○읍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관심 있는 자
 - ○○읍 소속 공무원
3. 공모 대상
 - ○○읍 상징 기호 1개, 상징 구호 1개
4. 공모 부문
 - 상징 기호 및 상징 구호: ○○읍의 이상과 희망을 표현
 - 상징 기호: ○○읍의 이미지, 정체성 및 미래 비전 등을 함축
 - 상징 구호: 구호 형태의 짧은 문구(한글, 영문 각종 기호 사용 가능)
5. 구비 서류(별지 서식 참조)
 - ○○읍 상징 기호: 공모 신청서/작품 설명서/ 파일 도안
 - ○○읍 상징 구호: 공모 신청서/설명서
6. 제출 규격
 - 파일 크기: 3508×4961 픽셀 이하, 해상도 150 이상

- 파일 형식: jpg, ai, eps, psd, cdr

- ① 공모 대상은 총 2개 부문이다.
- ② 참가자는 ○○읍 공무원이어야 한다.
- ③ 공모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한다.
- ④ 제출하는 파일명은 제출자의 한글 성명으로 한다.

[정답] ①

[논리적인 글 - 자료 해석 : 내용의 일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느라 진땀을 뺀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 공모대상은 총 2개 부문이 맞다.

<오답 피하기>

- ② 참가 대상은 “○○읍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관심 있는 자”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못된 진술이다.
- ③ 공모 수상자에 대한 진술은 없다.
- ④ 제출하는 파일명에 대한 진술은 없다.

문 7. 밑줄 친 '실의(失意)의 무진행' 당시에 '박군'은 몇 살이었으며, 현재 내 나이는 몇 살인가?

4년 전, 나는 내가 경리(經理) 일을 보고 있던 제약회사가 좀 더 큰 다른 회사와 합병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고 무진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아니 단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다. 동거하고 있던 희만 그대로 내 곁에 있어 주었던들 실의(失意)의 무진행은 없었으리라.

“결혼하셨다더군요?”

박이 물었다.

“흐응, 자넨?”

“전 아직. 참 좋은 데로 장가드셨다고들 하더군요.”

“그래?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스물아홉입니다.”

“스물아홉이라. 아홉수가 원래 사납다고 하대만. 금년엔 어떻게 해보지 그래?”

“글쎄요.”

박은 소년처럼 머리를 긁었다. 4년 전이니까 그해의 내 나이가 스물아홉이었고 희가 내 곁에서 달아나 버릴 무렵 지금 아내의 전 남편이 죽었던 것이다.

- 김승옥, [무진기행] 중에서 -

	<u>박군의 나이</u>	<u>내 나이</u>
①	25	29
②	29	33
③	29	29
④	25	33

[정답] ④

[문학 - 소설의 내용 파악]

* 2009. 국가직 9급 기출.

“그래? 자넨 왜 여태 결혼하지 않고 있나? 자네 금년에 어떻게 되지?” “스물아홉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현재 대화에 나타나는 박 군의 나이는 29세가 된다. ‘나’가 실직과 실연으로 실의에 빠져 고향인 무진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 4년 전의 일이라 했고, 4년 전 ‘나’의 나이가 지금의 박 군의 나이처럼 29살이 되므로 현재의 ‘나’의 나이는 33세가 된다. 그렇다면 내가 실의에 빠져 무진으로 여행을 떠났던 4년 전에 박 군의 나이는 25세이다.

문 8.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한국인은 매우 빠른 속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음식점에 가면 우리의 속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음식을 시킨 후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재촉한다. 원래 음식을 만들려면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손님의 요구대로 음식을 급하게 만들어서 내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현대인들 대다수가 계단보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빠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절차와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 '빠름'에서 벗어난 음식을 천천히 기다리는 멋, 한 계단씩 딛고 올라가는 즐거운 멋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 ① 아이 자라 어른이 된다.
- ②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 ③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 ④ 망건 쓰고 귀 안 빼는 사람 있느냐.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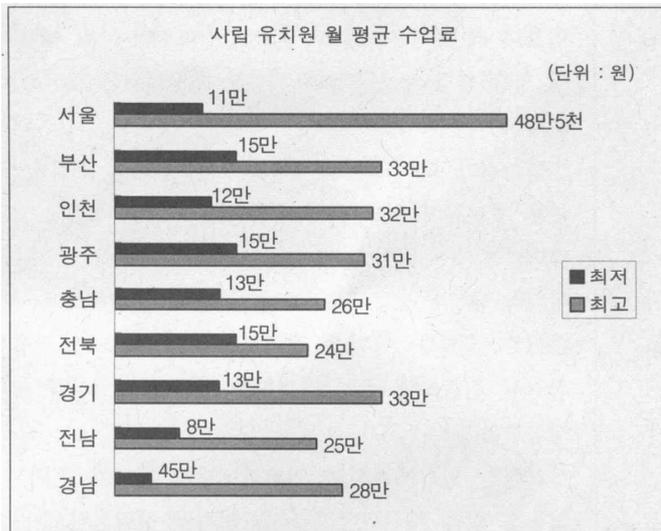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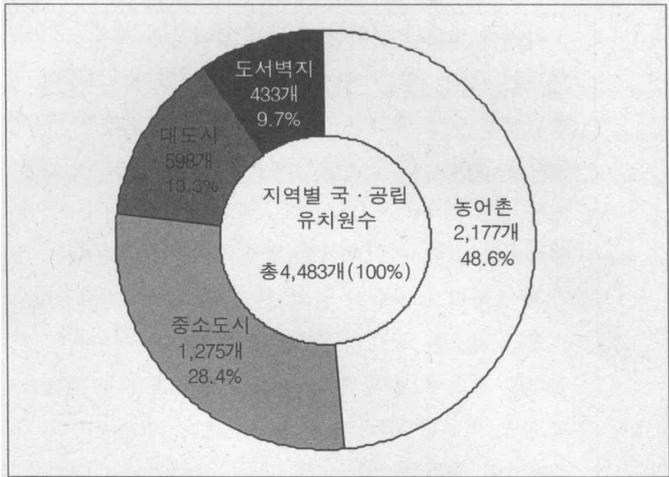
[어휘론 - 속담]

문맥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절차와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②가 답임을 알아내야 한다.

<오답 피하기>

- ③ 승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 자기의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저보다 나은 사람을 덮어놓고 따르려고 한다는 뜻.
- ④ 망건 쓰고 귀 안 빼는 사람 있느냐. : 망건을 쓰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편하게 귀를 내놓는다는 뜻으로, 돈 버는 일이나 먹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9. 다음 표를 보고 추론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도별 사립 유치원 등록금 순위는 그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의 수와 비례할 것이다.
- ② 미취학 자녀들을 키우는 대도시 빈민들은 자녀의 유치원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③ 국·공립 유치원의 설립은 교육 환경이 부실한 지역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대도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의 월 평균 수업료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싼 국·공립 유치원 수의 부족에도 기인한다.

[정답] ①

[논리적인 글 - 추론]

제시된 도표를 통해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시도별 사립 유치원 등록금 순위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쪽이 높다고 봐야 옳다. 그런데 국·공립 유치원의 수는 농어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다면 ①의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반비례한다고 표현했어야 옳다.

문 10. 다음 글의 내용에 따라 만들어진 광고 카피가 아닌 것은?

러시아 형식주의자인 야콥슨은 문학을 "일상 언어에 가해진 조직적인 폭력"이라 말한다. 즉 문학은 일상 언어를 변형하여 강도 있게 하며 일상적인 말로부터 계획적으로 일탈한다는 것이다. 낯설게 하기는 문학 언어를 일상 언어와 구별시켜 주는 근본이다. 우리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상투성으로 인해 우리의 의식은 고여 있는 물처럼 새롭게 생성되지 못하고 스테레오 타입으로 고정되고 자동화된다. 광고 카피에서 기존의 식상한 표현을 벗어나 놀라움을 준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도식적인 공식, 즉 법칙을 파괴하는 창조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학에서 말한 이것과 같은 의미이다.

- ① 난 샐러드를 마신다! (○○유업-요구르트 광고)
- ② 이젠, 빛으로 요리하세요! (○○전자-전자레인지 광고)
- ③ 차도 이 맛을 안다. (○○정유-기름 광고)
- ④ 우리는 젊음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룹-기업 광고)

[정답] ④

[문학 - 문학비평]

* 2008. 국가직 9급 기출.

러시아 형식주의의 '낯설게 하기'의 의미 파악

'낯설게 하기'란 일상 언어의 상투성을 벗어난 표현을 일컫는 것이다. ④에는 일상 언어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문 1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정신없어지고 지적 능력이 감퇴한다는 것이 일반 여성들의 상식이였다. 그런데 올 봄에 풀리처상 수상 작가인 캐서린 엘리슨이 [엄마의 뇌: 엄마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뇌를 얼마나 영리하게 하는가]라는 책을 써서 뉴욕 타임즈, CBS, NBC, BBS 등의 기사가 된 바 있다. 엘리슨이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은 1999년의 신경과학자 크레이그 킹슬리 등의 연구결과를 접하고였다.

최근 보스턴 글로브 지(誌)에 킹슬리 박사 팀은 몇 개의 실험을 통하여 위의 결과를 지지하는 흥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엄마쥐는 처녀쥐보다 인지능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후각능력과 시각능력이 급증하고 먹잇감을 처녀쥐보다 세 배나 더 빨리 찾았다. 엄마쥐 뇌의 해마(기억 및 학습 담당)의 신경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엄마쥐가 되면 엄마의 두뇌는 에스트로겐, 코티졸, 기타 다른 호르몬에 의해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된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엄마 혼자 내적으로 두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두뇌 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새끼를 젖먹이고 다루고 하는 과정에서의 감각적 민감화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인지적 능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어떨까. 대개 엄마가 되면 너무 힘들고 일에 부대껴서 결국은 머리가 켈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상당부분 사회공동체적 자기암시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하이오 신경심리학자 줄리에 수어는 임신한 여성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A집단에게는 '임신이 기억과 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고 B집단에게는 설명 없이 그 과제를 주었다. 그 결과 A집단의 임신 여성들이 B집단보다 과제수행점수가 상당히 낮았다. A집단은 임신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아 헤어가지 못한 것이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쥐에게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감각, 인지적 능력 및 용감성 등을 높여준다. 아빠쥐도 새끼와 상호작용하면서 뇌가 더 영리해진다고 한다. 임신한 엄마처럼 아빠의 뇌에서도 관련 호르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껏 연구는 주로 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인간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가능성은 많다.

- ① 이 글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이 글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뇌 기능의 변화에 관한 실험 결과를 논박하고 있다.
- ③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 측면은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 및 아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지-수행 뇌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 ④ 육아 활동을 통해 아빠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 ②

[논리적인 글 - 글의 내용 이해]

* 2008. 국가직 9급 기출.

글쓴이가 밝히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추출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이정모의 <고정관념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이란 제목의 칼럼이다. 출산을 한 여성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그릇된 것임을 <보스턴 글로브지>의 보도를 통해 밝힘으로써,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진술하고 있는 글이다. ①은 신경심리학자 줄리에 수어의 실험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사항이다. ③은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부분이다. ④는 “아빠의 뇌에서도 관련 호르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의미를 ‘논박’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 12.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발한 과장 광고의 사례는 300건이 훨씬 넘는다.
- ② 유리 건물은 은폐 공간을 최소화하여 각종 사고 예방과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
- ③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르듯이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도 다르다.
- ④ 한국인에게 있어서 대장암은 위암이나 폐암 등과 같이 발병률이 높은 암이다.

[정답] ②

[어문규정 - 어법]

* 2009. 국가직 9급 기출.

② ‘높이고 있다.’라는 서술어에 호응하려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업무의 생산성도 높이고 있다.’와 같이 표현해야 옳다.

문 13. ㉠~㉣에 들어갈 한자 숙어나 고사 성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니 욕심이 생긴다.
-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작년 것과 (㉡)하다.
- 부정부패를 (㉢)하고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이다.
- 공무원은 (㉣)의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	㉢	㉣
①	見勿生心	大同少異	發本塞源	不偏不黨
②	見勿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便不黨
③	見物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偏不黨
④	見物生心	大同少異	發本塞源	不便不黨

[정답] ③

[한자 - 한자성어]

* 2010. 국가직 9급 기출.

견물생심(見物生心) :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 勿(말물)

대동소이(大同小異) : 크게 다르지 않음. * 少(적을 소)

발본색원(拔本塞源) :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함. * 發(쏟 발)

불편부당(不偏不黨) : 아주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음. '공정함', '편들지 않음'으로 순화. * 便(편할 편)

문 14. (가) 상황에 어울리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은?

- (가) 상황 :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자주 다투는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충고의 말을 하려 한다. 내용은 삶과 관련하여 '조화(調和)의 가치'에 대한 것으로 하고자 한다.
- (나) 조건 : ㉠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한다.
 ㉡ 유추와 대조의 표현 효과를 살린다.
 ㉢ 가치의 요소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①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럽다. 이는 음식을 씹되 그 맛을 모르고, 혀는 맛볼 수는 있으나 맛이 우러나게 씹을 수는 없다. 이 둘이 어울려 제 기능을 다할 때 음식으로부터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 있듯이,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존재하기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② 분수와 폭포는 영원한 대립자이다. 폭포는 지하를 향해 끝없이 하강하려 하지만, 분수는 천상을 향해 부단히 상승하려고 한다. 폭포가 철저히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려 한다면 분수는 이러한 법칙에 반대하고 저항한다. 이 두 개의 . 의지는 결코 서로 만나 이웃을 이루는 일이 없다.

③ 광명과 암흑은 정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나 광명이 있을 때 비로소 암흑이 생겨난다. 촛불로 인해 찾아 온 광명은 암흑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촛불 밑에 암흑을 불러들인다. 광명이 없는 암흑은 다만 죽어 있는 정적에 지나지 않는다. 광명은 암흑을 깨어나게 한

다.

④ 인간에게 역사와 신화의 두 다리가 있다. 역사는 먹고 자고 입는 일상의 울타리 속에서 움직이며, 신화는 사랑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초월의 언덕 위에서 행동한다. 밥은 역사의 양식이며 술은 신화의 양분이다. 이 둘 모두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술 없이는 살아도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답] ①

[논리적인 글 - 글의 진술방식]

* 2010. 국가직 9급.

①에서 ‘이’와 ‘혀’라는 대립적인 속성의 사물을 활용하였다. ‘이’의 딱딱함이나 ‘혀’의 부드러움이 있어 음식으로부터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 있듯,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를 통해 아이가 존재하듯 유추와 대조를 통해 조화의 가치를 암시해주고 있다. 아마도 ③을 답으로 생각한 수험생들이 많았으리라. 그런데 광명과 암흑이라는 대립과 대조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 주제적 측면이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음을 드러낼 뿐 조화를 말하지는 못한다.

문 15.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말하기로 볼 수 없는 것은?

성공적인 대화가 되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솔직한 화법이어야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해야 하며,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내용일지라도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전달하거나 적절한 표현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① 뭐 대학엔 별 생각이 없어? 정신 차려 인마. 너만큼 컴퓨터 하는 놈들은 얼마든지 있어! 한심한 놈, 밥 대신 꿈 먹고 사는 놈 아냐, 이놈이.
- ②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 꾸벅 인사하며) 컴퓨터, 고맙습니다. 그리고요……(다시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며) 죄송합니다.
- ③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엘 고어는 경기장 내 담배 광고판을 없애자는 취지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때 소녀의 나이는 열세 살이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나이 들수록 흡연 횟수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십대의 꽃다운 나이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소녀는 다름 아닌 내 누이였습니다."
- ④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 일을 체치고라두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운 것인가. 빨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

[정답] ①

[논리적인 글 - 말하기]

완곡어법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①은 대단히 직설적인 어법을 쓰고 있다. ②는 솔직한 화법을 보여주고 있다. ③과 ④는 완곡어법을 써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 16.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 ① (같은 반 친구에게) 철수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시래.

- ②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선생님, 저는 김해 김씨입니다.
- ③ (점원이 손님에게) 전부 합쳐서 6만 9천원 되시겠습니다.
- ④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서) 할아버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답] ④

[어문규정 - 언어 예절]

* 2012. 국가직 9급 기출.

높임의 표현이나 겸양의 표현으로 ‘말씀’이라 써야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답을 금방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오라셔’라고 써야 옳다.
- ② ‘김가입니다.’라고 써야 옳다.
- ③ ‘되겠습니다.’라고 써야 옳다.

문 17. 다음 중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국어의 고유어에는 상징어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여 있다.
- ② 국어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결합하는 첨가어의 특성을 지닌다.
- ③ 국어는 첫소리에서 'ㄹ', 'ㅇ'이 발음되지 않는다.
- ④ 국어의 자음은 '[k]:[g], [t]:[d], [p]:[b]'처럼 '무성음:유성음'의 대립을 이룬다.

[정답] ④

[국문법 - 국어의 특징]

국어에서 무성음의 이음으로서 존재하는 유성음(ㅂ[p] ~ ㅃ[b])은 실제 발화 상태에서는 나타나지만 화자들은 이 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자음으로 인식한다. 즉 무성음과 유성음을 변별하지는 못한다. 국어에는 유성, 무성만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는 자음은 하나도 없다. 입술에서 공기를 파열시키는 양순 파열음을 예로 들면, 영어에는 /p/ 유성음 /b/가 있는 반면에, 국어의 /ㅂ/, /ㅃ/, /ㅍ/는 모두 무성음이다.

<오답 피하기>

- * 상징어는 음성상징어, 곧 의성어와 의태어를 가리킨다.
- * 두음법칙에 따라 ‘ㄹ’은 ‘ㄴ’으로 발음되고, 첫소리의 ‘ㅇ’은 초성일 때는 음가(音價)가 없으며, 중성일 때는 혀뿌리를 높여 연구개를 막고 날숨을 코 안으로 내보낼 때 나는 비음이다.

문 18. 어원상 신체 기관과 관계없는 한자어는?

- ① 단장(斷腸)
- ② 유전(遺傳)
- ③ 지장(指章)
- ④ 장풍(掌風)

[정답] ②

[한자 - 한자 어휘]

‘斷腸’의 ‘장’은 창자를 뜻하고, ‘指章’의 ‘지’는 손가락, ‘掌風’의 ‘장’은 손바닥을 뜻하지만 ‘유전’에는 신체와 관련된 어휘가 없다.

문 19. 밑줄 친 단어와 문맥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① 관찰하고
- ② 예언하고
- ③ 간주하고
- ④ 전망하고

[정답] ④

[어휘론 - 문맥적 의미]

사회간접자본 지출을 통해 경기 부양이라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전망(展望) 【~하다 → 타동사】
① 멀리 바라봄. 또는 멀리 바라다보이는 경치.
-----• 앞이 탁 텅어 ~이 좋다.
②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 ~이 밝다
-----• 앞으로의 ~은 어떤가
-----• 미래를 낙관적으로 ~이 밝다.

문 2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쓰레기를▽길에▽버리면▽안된다.
- ② 이▽일을▽하는▽데에▽사흘이▽걸렸다.
- ③ 부모▽자식간에는▽정미▽있어야▽한다.
- ④ 그가▽집을▽떠난지▽일▽년이▽지났다.

[정답] ②

[어문규정 - 띄어쓰기]

* 2011. 국가직 9급.

‘하는(관형어)▽데(의존명사)에(조사)’ 형태로 나타나는 관형어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문 제화했다.

<오답 피하기>

- ① ‘안(부사어)▽된다(서술어)’라고 띄어 썼어야 한다.

* 안되다 :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됐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몸살을 앓더니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③ ‘부모(와)∨자식(의)∨간에는’이라 띄어야 한다. ‘관계’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간’의 형태이므로 띄어야 한다. 만일 ‘부모 자식간에는’이라 해버리면 부모와 ‘자식들 사이’의 의미로 읽히게 돼버린다.

* ‘간’이 접미사로 쓰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부부간, 동기간, 인척간, 부자간, 부녀간, 모녀간, 모자간, 고부간, 천지간, 피차간, 다자간, 국제간, 다소간, 내외간, 노소간, 당내간, 상친간, 상신간, 숙질간, 인정간, 인척간, 자매간, 형제간, 조손간, 족형제간, 중항간, 지구간, 친사간.
--

④ ‘떠난∨지’라고 띄어 써야 한다. 이때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이다.